

바이오셀, 림프종암 임상시험 환자 모집

바이오기업인 바이오셀(대표 조성훈)과 전남대 화순병원(원장 강형근)은 환자 면역세포를 이용한 림프종암(임파선암) 치료제(제품명 NKM)의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2월부터 모집할 방침이다.

림프종암 면역세포 치료제가 국내에서 개발돼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임상환자 선정기준은 ▲악성 림프종 환자 ▲18-70세 미만 남녀 ▲표준치료 실패 또는 치료불가 환자 등이다.

임상환자는 50명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NKM세포 치료제를 투여받게 된다.

환자 1인당 1회 투여되는 NKM세포는 성인 20명이 체내에 갖고 있는 면역세포의 양에 해당된다.

조성훈 대표는 “NKM세포 치료제는 환자 혈액을 40cc 가량 채취한 뒤 면역세포만 골라 최대 20억개까지 증식시킨 다음 주입한다”며 “환자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31>